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킵시다
9월 20일

2020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집

코로나19시대, 기독교교육을 말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김두범 ——— 03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 즈음하여

강득환 ——— 04

땅 끝까지

코로나19 시대, 기독교교육에 대하여

오성주 ——— 08

어떻게 교회교육을 할 것인가?

유명화 ——— 10

바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최임선 ——— 14

교제를 생각하다

박미경 ——— 17

섬김을 생각하다

진슬기 ——— 20

만수감리교회 All Line 온가족 성경학교

정완영 ——— 26

강서감리교회 ZOOM 앱 활용 성경학교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 즈음하여

교육국 총무 김 두 범

●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고 교회 문이 닫힌 상황에 학생들이 어느 한 곳 맘 두 곳이 없습니다. 교회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워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육 방법의 갈피를 못잡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육 담당 교역자를 통해 영상예배를 드린다든지, 전화, 카톡 심방을 통해 간신히 소통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은 우리의 심정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대로 기독교교육은 주저앉고 마는 것인가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이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43:1)

●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젊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소유로 구속해주신 젊은이들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회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복음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 더욱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들과 교회 교육 지도자들은 더 간절히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세심한 사랑으로 돌보며 심방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방법과 도구를 총동원하여 각 개인에 맞춤형으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 파격적인 투자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소극적 관심으로 식어져가던 믿음과 사랑의 열정을 이번 기회에 다시금 불 붙여 기독교교육의 불이 교회마다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합3:2)

땅 끝까지

강득환 목사 (대림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1. 10년 전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순례 기간 중 이스라엘의 특이한 주거형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테라스식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주거 형태였습니다. 각 가구마다 단독주택의 마당과 같은 테라스가 딸려 있었고, 각기 테라스는 지붕이 덮여있지 않은 형태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계단식 논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워낙 산악지형이 많고, 비탈에다가 아파트를 짓다보니 이런 모양으로 건축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의 설명으로 저의 짐작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라스식 아파트는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생겨난 형태이고, 사람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보이는 테라스를 갖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눈을 들어 밤 하늘을 볼 수 있고, 별을 볼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초막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테라스에 초막을 짓고는, 이레 동안 모든 가족들이 함께 거주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초막절 전통이라 합니다.

초막절 기간 중 자녀들은 부모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레 동안 머무는 것인가요?”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0년 광야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32:7).”

자녀들은 묻고, 부모들은 믿음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부러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교육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몸소 보여줌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통을 준수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킴으로 믿음을 다음세대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현재 한국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도의 문이 더욱 좁혀진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 감염병으로 전도와 성장은 꿈도 꿀 수 없고, 교회의 존폐까지도 걱정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속회나 선교회 모임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성전예배를 대체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신앙교육에도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교훈을 살펴보면,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함께 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가장 집중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은 부모 세대의 헌신과 교육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세대에 믿음을 전수해주기 위해, 부모 세대가 헌신해야 합니다. 다음세대에 신앙을 교육해야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택 마당에 소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나무 크기와 가지 숫자에 비해 솔방울이 너무나도 많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조정 사업을 하시는 교인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소나무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면, 그 때부터는 후대를 남기기 위해 사력을 다해 솔방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설명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나무는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위기의 때가 찾아오면 소나무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위기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침착하고도 분명하게 전진시켜야 합니다.

3.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라 하시는 당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증인이 되어 선교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 비로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임재를 경험한 후에 예

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앞에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1:8의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선교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내용이 행1:8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행 1:6)”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단호하게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명확한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행1:8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더 넓은 지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유대 땅만 신경쓰지 말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통과해, 땅 끝까지 나아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곳은 땅 끝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땅 끝까지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관심의 폭이 넓어집니다. 고통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의 비전에도 마음을 두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땅 끝에 있음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10)” 그래서 성령 받아야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주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전 2:16)

4.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행 8:1)” 그 후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의 관심밖에 있었던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의 지경이 사마리아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이 일이 너

무나도 신기했던지 교회는 사도들을 파송하여 상황을 확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행 8:14)” 확인하고 돌아가는 사도들도 다른 사마리아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행 8:25)”

이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땅 끝을 향한 복음의 전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행 11:19)”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자신들의 기준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땅 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행 11:20)”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땅 끝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5.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비추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이제까지 내가 관심가지지 못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마음이 향하는 곳임에도,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곳이 교회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이 어른 성도들에게 두는 비중보다 교회학교에 두는 무게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 자원의 투자도 부족하고, 인적자원의 투자도 부족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교사 수급 문제로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우리의 관심 저 멀리에 있었던 교회학교의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학교야말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 교회의 땅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다음세대를 세워냄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교회교육을 할 것인가?

오성주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과 목회자들은 COVID-19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편으로 새로운 목회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예배를 드릴 것이며, 어떻게 교회교육을 할 것인가?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콘텐츠 개발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기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적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이용해왔지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After Corona) 시대에 교회선교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초연결 사회가 형성되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혁신을 가져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비대면 시대에 돌입하면서 ‘비접촉’(untact 혹은 non-contact)을 통해 만남과 관계의 접촉방식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을 통한 상호작용의 한계성, 즉 오프라인의 접촉의 감정과 느낌을 디지털 기술에 적용함으로 온라인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더욱 세밀하고 정밀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혹은 ‘몰입경험’이라는 다양한 시도가 더욱 빠르게 산업계와 의료계 그리고 교육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교회선교와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팬데믹(pandemic)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온라인 교회선교와 교육은 위기에 처한 교회교육의 새로운 도전이며 대안으로 복음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접촉 시대에 여호와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계시며 지구 안에서도 계시며 밖에서도 계시고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가상공간에도 계시며 오프라인의 신앙공동체 예배에도 계십니다. 비대면 학습공간에도 대면 학습 현장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비접촉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시간과 거리와 공간은 초월해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깝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전통적 회중중심의 교회에서 실행해오던 오프라인의 예배, 교육, 친교와 봉사는 여전히 소중

한 교회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COVID-19 위기 속에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가정에서 혹은 교회(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각기 개별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온라인 교회교육과 선교 네트워크 접속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떠한 위기적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변치 않아야 할 중요한 사명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가르치는 일(신명기 6장 7-9절)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신명기 4장28절)”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신도들이 ‘목석의 신’과 같은 ‘디지털 기계의 신’이 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흩어져 모일 수 없는 교회적 상황일지라도 혹은 인터넷을 통한 가상적 공간의 교회모습일지라도 또는 각 개인이 비접촉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교육 프로그램을 접속한다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신명기 4장29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서는 ‘칼과 기근과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부재한 경우 그것은 ‘목석의 신’과 같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래학자들의 주장 가운데 인류에게 닥쳐 올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것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생태계의 파괴이며 그 결과 신종 바이러스가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 이전부터 존재해 있던 것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자 대항해야(against virus)할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 공존해야(with virus)할 대상입니다.

2020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라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시대 이후 전 세계가 COVID-19 방역과 함께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의 감염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말전염과 접촉감염을 방역하고 예방하기 위해 개인적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국가 방역’과 ‘국경봉쇄’ 등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며 거리두기를 생활화함으로 만남과 대화를 자제하거나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증가하는 ‘COVID-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보도되어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과 같이 절망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이사야 55장6절). 지금은 하나님의 공해를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 유명화 강사 (교회교육전문가양성센터)

● 코로나19가 지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독교 신앙과 예배는 많은 도전 앞에 서 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성전 예배의 대안으로서 가정을 비롯한 교회 아닌 곳에서의 예배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살게 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예배의 포기가 아닌 대안으로서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 회당과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도리어 믿음을 굳게 세우고 예배의 소중함을 삶으로 살아냈었다. 페스트의 파멸의 위협의 파도를 건너면서 삶과 죽음 앞에서 참 신앙에 대한 빅 퀘스천(Big Question)을 던지던 중세 교회의 시련은 사제들이 온갖 이방 종교가 뒤섞인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본 루터의 가슴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것이다.¹ 지금은 잠잠히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하여 빅 퀘스천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우리의 진정한 예배로 응답해야 하는 시간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

●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가정예배는 신앙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드려질 수 있다. 교회 주일 예배 순서를 그대로 따라 드리는 전통 모델, 예배 순서 중 기도나 말씀을 확대한 기도 중심 모델이나 성경공부형 모델이 있다.² 또는 특별한 절기나 이벤트를 축하하거나 위로와 격려를 위한 이벤트 중심의 모델도 있다.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배 규정원리(regulative principle)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규칙으로서 규범원리(normative principle)를 정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하고 우리 가정에 맞는 예배를 위한 언약(covenant)을 만들어 지키는 일은 도움이 된다.

● 가정예배를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나 맡은 인도자가 주체적인 신앙 훈련과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은 예배에 앞서는 선행 요인이 될 것이다. 부모나 인도자가 먼저 예배자로서 삶을 정

¹ 웨인 팔머, 이지성 옮김, 『따뜻함과 젤러미에 얹어: 2017 사순절 묵상집』(서울: 한국루터란아워, 2017), 116.

²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가정 예배 오답노트 다시쓰기』(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263-277.

결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이해하려는 노력은 가정예배의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적 환경이 된다. 또한 예배자로서 인도자인 부모나 인도를 맡은 이가 하나님의 성품의 전달자가 되고 자 하는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예배를 드러낸다. 실제로 가정 예배가 드러지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 거룩한 기억의 공간이 생겨나며 가족들 사이에 교제와 섬김이 실현되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실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의 핵심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순서가 잘 구성됐는가? 우리 가족들의 나이와 신앙의 수준 혹은 생일이나 세례, 시험기간이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드리도록 할 수 있는 예배인가? 예배 안에 다양한 감각과 상징, 공간, 예술적 요소를 사용하여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정리했다면, 실제로 예배 순서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보자.

● 가정예배의 구체적인 순서를 정할 때에 우선, 성경 본문보다 가족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의 상황을 살핌으로써 우리의 삶과 연관성을 지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보자. 두 번째로 말씀을 정할 때에는 삶의 주제에 대한 교재,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큐티집³, 매일 성서 일과⁴ 혹은 교회학교 교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예배를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유익하다. 세 번째로 가족에 맞는 예배 스타일을 정한다. 전통적 유형, 기도회, 말씀 묵상 나눔, 비블리오 드라마, 예술 활동과 놀이가 있는 유형 중 하나를 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한 역할을 정하는 일로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역할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한다. 또한 가족들이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역할을 고르도록 한다. 여기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제에 따라 “예술로 드리는 가정 예배”와 “기도 중심의 가정 예배” 모델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로 드리는 가정 예배”

순서	진행	환경
예배 준비	• 예배 장소 정하고 청소하기 • 십자가, 초, 방석 또는 의자, 성경책과 찬송가 • 순서지(각자 맡은 역할 확인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 치유의 향아리(보이지 않는 그릇과 가정 상비약품)와 작은 그릇이나 접시 • 색종이, 색연필	안전하고 깨끗한 곳을 정하여 중앙에 초를 준비한다.
시작의 기도	인도자 : (준비된 초에 불을 붙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건강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³ 매일 성경, 오늘의 양식, 생명의 삶, 더 깊은 묵상을 위한 기초도구 GT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기, 연대기별로 읽기(통독성경, 바이블 프로젝트), 매일 성서 일과, 맥체인 성서 읽기 등

순서	진행	환경
찬양 드리기	“예수께로 가면(565장)” 또는 가족들이 정한 감사 찬양을 힘차고 아름답게 부른다. 몸으로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 가족들은 춤추고 박수 치면서 찬양을 드린다.	
말씀 만나기	마가복음 5:35-43 “야이로의 딸” 1. 말씀 읽기-말씀이 한 번 읽는다. 그리고 해설, 예수님, 회당장, 세 명의 제자들과 같이 있던 사람들로 역할을 나누어 다시 한 번 읽는다. 2. 말씀 살피기 1) 지원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준다. 2)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적은 종이를 바닥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뜨려 놓는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이름 주위에 가서 모이도록 한다. 인도자는 “왜 이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터뷰하듯이 묻는다. 가족들에게 그 사람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로 짧게 기도한다. 종이에 적힌 이름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다. 3) ‘치유의 향아리’ 속에 담긴 약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닥에 놓으면서 어떤 약인지 알려준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약을 선물하고 싶은지 각자 정한다. 그릇에 약을 담아서 자기 앞으로 그 약과 그릇을 가져온다. 가족들이 선택을 마친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누구에게 이 약을 주고 싶은지 이야기 한다. 발표를 마치면 그 그릇과 약은 초 주위에 놓는다. 3. 말씀 묵기 :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성경 읽기 오늘 말씀 속에 치유의 약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한다면 나는 누구에게 어떤 약을 전해줄 것인지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 나눈다.	치유의 향아리를 할 때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말씀에 대한 응답 기도하기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의 약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묻는다. 한 사람씩 치유의 약을 그릇에 잘 담아서 전할 사람에게 준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OO에게 _____을/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하면 다같이 “아멘.”으로 응답한다.	
기도로 마음 전하기 (중보기도)	치유의 향아리에 남아 있는 약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 두통약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른다.) 다같이 :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고쳐 주세요. • 소화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른다.) 다같이 :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고쳐 주세요. • 화상 연고가 필요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른다.) 다같이 :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고쳐 주세요. • 밴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른다.) 다같이 :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고쳐 주세요. 인도자 :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13-16) 주님의 말 씀대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 기도	가족이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2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 중심의 가정 예배'

순서	진행	환경
예배 준비	• 예배 장소 정하고 청소하기 • 십자가, 초, 방석 또는 의자, 성경책과 찬송가 • 순서지 (각자 맡은 역할 확인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 중보기도자 이름이나 제목 적을 수 있는 흰 종이와 펜	안전하고 깨끗한 곳을 정하여 중앙에 초를 준비한다.
시작의 기도	인도자 : (준비된 초에 불을 붙이면서) “사랑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기	“예수께로 가면(565장)” 또는 가족들이 정한 감사 찬양을 힘차고 아름답게 부른다.	
말씀 만나기	마가복음 5:35-43 “아이로의 딸” 1. 말씀 읽기 (말은 사람이 낭독) 2. 말씀 살피기 1) 원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준다. 2) 이야기 속에서 기도해 주고 싶은 한 사람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꼭 해 주고 싶은 한 가지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 주고 싶은지에 대하여 말한다. (준비된 종이에 기도를 해 주고 싶은 인물과 기도 내용을 간단히 적은 후 보여주면서 발표하면 진행에 도움이 된다.) 3) 자신에게 가장 다가오는 말씀 구절을 고른 후 거기에 맞는 색깔을 정하고 돌아가면서 그 선택의 이유를 이야기 해 본다. 3. 말씀 묵기 :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기 만약 내가 아이로의 딸이었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느낌이나 생각을 이야기 해 보자.	성경책, 흰 종이, 펜
말씀에 기도로 응답하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기도를 왼쪽에 앉은 사람이 자기 오른쪽 사람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앉은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 왼쪽에 앉은 언니 : “하나님, 우리 동생 ‘지민’이가 ‘친구와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오른쪽 동생과 가족들 모두 : “아멘” • 모든 순서를 마치면 다 같이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음 전하기 (중보기도)	우리 가족이 기도해 줄 사람들을 떠올리며 흰 종이에 이름이나 기도제목을 적는다. 함께 축복과 위로의 중보기도를 한다. (예: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능을 앞 둔 언니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기도를 마칠 때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응답하면 다음 사람이 이어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	한 손을 포개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다.
마침기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코로나19시대, 교제를 생각하다

■ 최임선 강사 (교회교육전문가 양성센터)

코로나19는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예상보다 길게 우리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다. 마스크가 삶의 필수품이 되었다. 바빠야 할 교회의 여름이 이 때문에 한산해졌다. 모든 것이 노멀(nomal)이 아닌 뉴 노멀(new nomal)로 전환되어 신앙교육에서도 미래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할 과제가 주어졌다.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를 상상한 적도 없었고, 경험한 적도 없었기에 당황스럽고 만남이 없는 신앙교육을 기획해야하기에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한다.

언택트 시대에 영상은 중요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많은 교회에서 영상으로 어른 예배의 상황을 송출한다. 어른들은 이러한 문화에 많이 적응되었다. 책임감 있는 어른들은 주일 예배시간을 꼭 지키기 위해 교회에서 송출되는 방송에 따라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영상예배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어린이들보다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덜하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교회 사역자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낸다. 그러나 문제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예배는 영상으로 송출하는 대안이 있으나 예배 후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교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됐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형편이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아마도 올해 말 정도에나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어린이와 청소년들과의 교제를 계속하며 신앙교육을 지속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실시하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보조일 뿐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끌고, 오프라인은 다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모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을 고민하며 기획하는 것은 어떨까? 현재의 시간뿐만 아니라 미래의 신앙을 세워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 신앙교육 회복의 소그룹

신앙교육을 위해 가정의 교육을 고찰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교회학교가 지금처럼 진행되지 않았던 구약시대부터 현존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 오셨다. 모세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법을 말했고 부모라면 누구나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7)”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을 전달하기 좋은 가정의 역할을 놓치고 있었다.

한 번 생각해보자.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교회학교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만나는지?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 자녀들은 보호자로 동행하는 부모의 시간에 맞춰 한 시간을 넘길 수 없다. 청소년이 되어 오가는 일이 자유로워져도 입시라는 커다란 산에 막혀 한 시간이상 만날 수 없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만난다면 일 년에 약 50시간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온전하게 한 시간을 만나지 못하니 대략 40시간을 만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은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보다 월등하게 많다. 특히 요즈음 같이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은 훨씬 많아졌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 때, 가정을 대체 교회학교로 만드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 보자.

가정 : 교제가 있는 장으로

1. 부모 교육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부모들이다.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성숙을 위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적을 위해 많은 열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그 열심의 정도가 분명 뒤떨어져 있다. 주일 하루 교회에 가는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도하지 않았다. 부모들은 신앙교육은 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지,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각기 다른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이다. 부모는 성인예배에 참석하고, 자녀는 교회학교 부서예배에 참여했다. 교회 공간에서 가족이 함께 만나는 장소나 프로그램이 없었다. 따라서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하는 일은 익숙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성을 발달시키는 문제에 아무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교회는 가정과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켜야 한다. 부모들에게 신앙교육이 왜 가정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회는 자녀의 나이가 비슷한 부모를 소그룹으로 모아 zoom이나 영상으로 교육하고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한다.

2. 함께 하는 가족체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신앙교제가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다. 요즈음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어렵다. 사실 식구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인데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교회에서 한 달에 하루 같은 토요일을 정해서 각 가정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권면한다. 교회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진행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준다. 가족끼리 식사 후에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서 진행한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이나 자료를 보고 자녀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 자녀들이 또 부모가 원하는 것을 영상편지로 만들어 함께 보는 시간, 가족 미션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녀와 함께 진행한다. 가족이 같은 체험을 갖는 것은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더나가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듣고 답하는 시간 등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좋아지면 같은 연령층이 있는 가정들 2-3가정이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식사 후 교회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다. 자녀들에 대한 공통의 고민과 경험이 있는 부모끼리 만남을 갖게 한다.

위에 제시된 신앙교육을 위한 모임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언택트 시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홀로 신앙교육의 담당자가 되기보다는 가정을 동역자로 세워 함께 교육하는 일, 이것은 흔들리고 있는 현재의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코로나19시대, 섬김을 생각하다

■ 박미경 목사 (양광교회)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앞을 예측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택트(untact) 시대로 기능하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고 그려나가야만 하는 강제성을 요구받고 있는 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포스트(post) 코로나가 아닌 위드(with) 코로나를 논하는 시점에서 대 사회적 교회의 섬김을 생각해봅니다.

공교회로서의 교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논하지 않고 있으며, 누군가 말하려 해도 그건 개인적인 것이니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정말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야 할까요?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적 집단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학자 후버는 교회란 문화적 타당성을 갖고, 공동의 삶에 기여하는 사회체계 중 하나라고 이해합니다. 나아가 이도영 박사는 한국교회가 공교회성과 공동체성,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2019년 목회자포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교회로서의 역할이 개체교회로서 또한 연합사역으로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목회자와 성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신천지교회를 시작으로 사랑제일교회에 이르기까지 속내야 다를지라도 ‘교회’라는 타이틀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교회는 어느새 무서운 전염집단처럼 인식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올해 5월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종교 단체의 집회, 단체 활동이 코

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초기 교회는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을 돌보며 사랑의 온기를 발하는 공동체였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그 공동체와는 한참 떨어진 느낌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헤퍼는 교회가 세상을 위한 대리행위를 과제로 지닌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내부적 원리를 세상 속 실존의 기본 원리로 살아야 함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며 세상을 품으셨음을 기억하며,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품어야 함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인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회자되던 말인데 함께 나누어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역사회 섬김을 통해 날마다 그 수를 더하는 교회

코로나19 시대,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잠잠히 있기만 해야 할까요? 더욱더 예배공동체로서의 정체성만 강조해야 할까요? 어느 목사는 요즘 교회가 단순히 코로나 이후 출석교인의 수를 염려하는 것 같다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기억하며 오히려 섬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손봉호 교수 역시 교회가 사회의 신임을 얻는 방법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구제 및 봉사활동 27.9%, 환경, 인권 등 사회활동 8.4%, 교육사업 4.2% 이라 대답한 반면 윤리와 도덕적 실천운동이라는 응답은 48.8%였습니다. 왜 ‘윤리와 도덕적 실천운동’이라는 항목의 비율이 높은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지역사회가 교회를 신뢰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것이 바로 이뤄질 때 교회의 구제와 봉사, 사회활동, 교육사업 등이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를 전염병에서 찾았습니다. 3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파라볼라노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 이방인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루(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상태에 있는 현 시점에서 교회는 성도를 살피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행하기 위한 즉각적인 실행력이 요구됩니다. 구약에서 섬김은 히브리어 ‘아바드’란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고 그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더 나아가 자연생태까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디아코니아’가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랑의 구체적 실천으로서의 섬김과 봉사를 뜻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며 유발 하라리는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인류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강화 사이에서의 선택과 둘째로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대를 통해 지구촌의 미래를 밝혀야 하겠지요.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구치 슈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미래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예측한다고 해도 그 예측이 맞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도 코로나19 이후를 예측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된 신앙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먼저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모습을 오늘의 현실에서 구현하는 실천적 행동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마스크를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소외된 이들에게 보내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교회를 도우며, 손길이 부족한 병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발적 사랑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결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체적 실천을 행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훈련받고 실천하는 교회는 자연스러운 신앙교육이 일어나겠지요. 우리 몸은 훈련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섬김을 통해 그 선한 소식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신앙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적극적 실천을 모색합시다.



ALL LINE, 온가족 여름성경학교

진슬기 전도사 (만수감리교회)

만수교회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예수님과 함께!(Camping With Jesus)”라는 주제로 온 가족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함께 진행하는 <All Line: 모든 라인을 동원하는 온니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All Line 여름 성경학교는 8월 한 달 동안 4가지의 주제로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1주차에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을지 분위기를 맛보여주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모든 가정이 한데 모여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없기에 9시, 11시, 2시, 4시, 6시, 8시 총 6번의 타임으로 나누어 한 타임 당 6~8가정씩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학교 약 2주 전부터 전화 심방과 가정통신문, 초대장을 발송하여 참석 여부를 신청받았고, 총 38가정이 9시, 11시, 2시, 4시 타임에 신청해서 1주차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각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고, 활동키트를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활동키트는 각 주차별로 주제에 맞추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학교 가랜드 만들기, 나만의 보석 만들기, 깃발을 잡아라, 빙수 만들기. 이렇게 4가지의 활동 준비물을 만들기 재료와 함께 활동키트에 넣어 보냈습니다. 1주차 오프라인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가정은 교회에서 직접 수령해서 가져갔고, 참여하지 못한 가정은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활동키트를 준비하면서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다보니 교육국에서 제공해주는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활동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서 영아부 아이들은 거의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예년보다 성도님들의 성경학교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로비에 중보기도 나무도 설치하고, 홍보영상도 계속해서 틀었지만, 성경학교를 진행하는지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역할도 분명치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모여 다같이 준비하기가 어려워 오프라인 성경학교 전날 교사들이 나와 데코 부분만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 촬영 및 편집, 활동키트 준비, 촬영시 데코 등은 모두 교육전도사님들께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영상 촬영 및 편집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순서를 영상을 찍어서 작업했기 때문에 2달이라는 준비 기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시간

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몇몇 사람에게 편집이 물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All Line 성경학교에 어려운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 속에서 더 밝게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내내 “부모님들께서 교사가 되어주시고, 언니, 누나, 오빠, 형이 조장이 되어 성경학교를 진행해 달라”라고 부탁드렸었는데, 부모님들께서 먼저 나서서 성경학교를 진행해주시고 아이들보다 즐겁게 성경학교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캠핑이라는 컨셉에 맞추어 실제로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에 가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All Line 성경학교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예배가 각 가정으로 흩어지고 있는 이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어떻게 예배를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을지 짚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ALL LINE, 온가족 여름성경학교 |

1. 주제

예수님과 함께 (Camping With Jesus)

2. 주제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3. 교육목적 : 2020년 교육부 여름가족 성경학교를 통하여

- ① 예수님과 함께 떠나요 / 마태야 놀자 (마태복음 9장 9절)
- ② 예수님과 함께 찾아요 / 보물을 찾자 (마태복음 13장 44절)
- ③ 예수님과 함께 이겨요 / 용기를 내자 (마가복음 6장 45-51절)
- ④ 예수님과 함께 먹어요 / 맛있게 먹자 (요한복음 21장 1-14절)

4. 일시 : 2020년 8월 2일, 8일, 15일, 22일 (4번)

– 8월 2일 : 오프라인 진행

– 8월 8일, 15일, 22일 : 온라인진행

※ 오프라인 진행시 시간별로 (9시, 11시, 12시, 14시, 16시, 18시, 20시) 신청하여 배정

– 영아, 유아, 유치부 – 최대 8가정

– 유년, 초등부 – 최대 8가정

5. 장소

유년부실, 초등부실 + 각 가정

6. 예상인원 (200명)

- ① 학생 – 182명
- ② 스태프 – 18명

7. 여름 가족 성경학교 준비일정 (매주 성경학교 모임: 토요일 오후 3시)

준비	일정	세부내용	비고
사전준비	6월 중	마이크, 조명, 데코, 스탭 티셔츠 구매	
단체 티셔츠	6월 7월	7월 18일까지 각 부서별로 사이즈 파악 7월 20일 주문	스텝티는 6월 주문
부장단 설명회	07월 05일	교육목사: 일정, 주제, 기대효과 유아부 전도사: 프로그램 전체 내용 유치부 전도사: 예산	
성경학교에 초대해요	07월 12일	여름 가족 성경학교 초대장 발송	*성경학교 전화심방 시작 (첫 주 오프라인 때 참여 시간) (9시, 11시, 14시, 16시, 18시, 20시) (타임 당 6-8가정) ※ 집중되는 시간대를 대비해 1, 2지망
성경학교 한눈에 보기	07월 19일	5분 메시지 영상 + 주제, 일정 영상	부모님들께 발송
성경학교 이렇게 진행해요	07월 26일	담임목사님 인사말	7월 19일부터 본당 홍보영상 2주 준비

8. 여름가족성경학교 촬영 일정

번호	영상	촬영일정	비고
1	홍보영상	6/27일 오후 6시	
2	요절송	6/28일 오후 3시 30분	주제 말씀을 제외한 과별 말씀 촬영
3	찬양	7/5일 오후 3시 30분	울동팀 - 예수님과 함께(주제곡), Follow me, 함께하시는 예수님, 두렵지 않아요, 아미야미, 기도해요, 주기도문송 촬영
4	인트로	미정	봄이 선생님 촬영 *전체 인트로, 설교 인트로
5	대표기도	7월 중	2주차 - 7월 12일 / 3주차 - 19일 / 4주차 - 26일
6	설교	7월	7월 19일 (2~4과 설교 촬영)
7	활동키트	미정	

9. 영상작업 (전체시간: 1시간 이내) 이 외에도 홍보영상 제작 필요

번호	영상	준비사항	비고
1	인트로	- 영유아유치부 - 유초등부 각 부서별로 '봄이'캐릭터 역할을 맡아서 촬영 *봄이로 분장 필요	영, 유아, 유치부 - 4편 유, 초등부 - 4편 8편
2	찬양/울동	예수님과 함께 야호! 캠핑(주제곡) Follow Me 두렵지 않아요 함께하시는 예수님 야미야미	5편
3	기도송	기도해요(팻머스 ver)	1편
4	기도	매 주차 대표기도 *각 부서 부장님 + 교육부장님이 촬영	영, 유아, 유치부 - 3편 유, 초등부 - 3편 6편
5	요절송	1과 말씀 2과 말씀 3과 말씀 4과 말씀	4편
6	설교 인트로	성경학교 인트로 했던 선생님들이 각 주차 별 말씀 인트로 진행	8편
7	설교	각 부서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 *마지막주는 교육 목사 설교	설교는 5분 메시지 영유아유치부 3편 유초등부 3편 6편
8	주기도문송	주기도문송(팻머스 ver)	1편
9	활동키트	각 주차 별 활동키트 영상 촬영	1주차: 가랜더 만들기 2주차: 나만의 보석 만들기 3주차: 깃발을 잡아라 4주차: 팔빙수 만들기 4편
10	아웃트로	다음 주 예고 영상	3편
11	기타영상	홍보, 주제, 일정, 초대영상 등	2편
			58편
준비물 : 카메라, 마이크, 찬양AR, 데코(캠핑장, 현수막), 티셔츠(선생님들 개수에 맞게 준비), 울동팀 의상, 인트로팀(봄이 2명) 의상, 활동키트			

10. 활동키트 준비사항

	준비사항	비고
1주차	가랜드 만들기	1주차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진행할 때 각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 할 수 있는 데코 함께 만들기
2주차	나만의 보석 만들기	활동키트에 넣어서 1주차 때 보냄 *1주차 때 오지 못한 친구들은 1주차 활동도 넣어서 우편배송 (1주차 예배 후 파악해서 바로 배송)
3주차	깃발을 잡아라	
4주차	팔빙수 만들기	

11. 중보기도 프로그램



중보기도 나무를 설치해 나뭇잎 모양 메모지에 성경학교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성경학교 내내 본관 로비에 세워두었습니다.

ZOOM 앱을 활용한 여름성경학교

정완영 목사 (강서감리교회)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교회와 교회학교를 위축되게 만든 상황에서 강서감리교회 아동부 예배 역시 그동안 큰 타격을 입었다. 4월에 들어서서 현장예배를 멈추고 약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감리교 교육국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진행하다가 이후 줌(ZOOM)예배로 전환하였다. 줌 예배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예배를 드릴 경우 부모님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부모님의 신앙 교육열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어린이와 그렇지 못한 어린이의 편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마저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어 영상교육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예배 영상을 자발적으로 찾아보면서 그것도 예배의 형식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그나마 줌(ZOOM)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예배를 실행하여보니 굳이 부모님의 지도 없이도 아이들이 한 둘씩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5월에 들어서 어린이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대면예배를 시작하였고 줌 예배를 대면예배에 같이 접목시켜 여전히 참석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공과시간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함께 활동을 진행하며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속한 아이들과 줌의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공과 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상황이 잦아들면서 대면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평소의 60~70%정도 회복하였고, 10~20%는 온라인으로 꾸준히 참여하였으며, 안타깝게도 10~20%의 인원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어떠한 형태의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던 8월 중순을 계기로 그동안 미뤄왔던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기존처럼 2박3일, 3박4일의 형태는 불가능했기에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일을 이용하여 성경학교를 2주간 진행하였다. 또한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한주에 2과씩 공과를 진행하려던 계획을 한 과씩만 하기로 수정하였다. 대신 오후 시간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뛰놀 수 있는 프로그램(달고나&솜사탕 만들기 체험, 에어바운스 놀이)으로 대체하였다. 성경학교도 마찬가지로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먼저 학부모님들께 온라인으로 계획안과 신청서를 보내고 참여형태를 물어본 후 비대면 참여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일주일전에 성경학교 교재와 티셔츠, 그리고 2주간 제공되는 간식을 포장하여 함께 집으로 우편 발송하였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님이 곁에서 교사역할을 해주시면서 공과활동과 만들기 활동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하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따라주었다. 연령대별로 분반학습이 시작되면 교사들의 지도하에 방역수칙을 최대한 따르도록 하였지만 마스크착용에 비해 거리두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았다. 비대면으로 참여한 아이들과는 역시 Zoom을 이용해 온라인 공과활동과 온라인 만들기 활동을 현장과 같은 시간대에 진행하였다. 물론 온라인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예배 중간 중간 질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한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다행이도 코로나의 재확산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었지만 교회학교는 다시금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줌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으며 못 다한 성경학교 교재 3과, 4과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교재가 대부분 교회에 남겨진 상황이기에 교재를 활용한 공과 활동과 만들기 활동 대신 색종이 접기(교회 만들기, 십자가 만들기 등)로 후속활동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각자 집에서 악기를 이용해 특송을 준비하여 연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언제고 상황이 나아지면 대면예배가 회복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

온라인예배의 장단점과 개선해야할 사항

영상을 제작하여 콘텐츠를 온라인상에 올려 자유롭게 시청하는 형태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역량에 의존하는 상황이기에 교육편차가 심하고 온전한 예배의 형태로 가정에서 드러지는지 피드백이 어렵다. 또한 퀄리티있는 영상을 매주 새롭게 올리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나마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줌(ZOOM)예배의 형태가 오히려 사역자와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앱을 사용하는 비용이 나가는 점은 아쉽다. 또한 줌예배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면예배와 접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도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시청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부모를 설득해서 교회현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집이 멀어서 한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온라인예배에 적극 참여하다가 이번 성경학교 주간에 현장예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코로나의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비대면예배를 강화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사역자는 콘텐츠 제공자로서 다양한 비대면예배의 플랫폼을 경험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예배형식이 아니라 비대면예배에 적합한 창의적인 형식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히 예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비대면에 적합한 교재와 활동개발이 시급하다.

| ZOOM 앱을 활용한 여름성경학교 계획 |

■ 일시 : 8월 9일, 16일(주일) 오전 11:00 ~ 오후 3시

■ 장소 : 강서감리교회 소예배실

■ 회비 : 5천원(교재 및 티셔츠 등)

	9일(주일)	16일(주일)
10:50~11:15	찬양	찬양
11:15~11:35	말씀캠핑 1 (설교)	말씀캠핑 2 (설교)
11:35~12:30	공과활동 및 만들기	공과활동 및 만들기
12:30~1:20	점심식사	점심식사
1:20~1:30	찬양	찬양
1:30~2:50	특별활동1 (달고나&솜사탕 만들기)	특별활동2 (에어바운스 놀이)
2:50~3:00	마무리 및 간식	마무리 및 간식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 온라인의 형식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어린이는 ZOOM 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 배우기, 교재 적용활동, 만들기 활동을 중심으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부모님이 교사역할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예배 시 철저한 소독과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합니다.

신 청 서

자녀 이름			학부모 성함		
연락처			주소		
현장성경학교 신청	☐		온라인성경학교 신청	☐	

말씀캠핑

- 설교 후 반별로 담당선생님과 공과를 진행한다. 테이블을 이용하되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각자 쓸 수 있도록 필기구, 풀, 색연필 등을 충분히 준비한다.
- 교재는 어린이 이름이 적힌 가방에 넣어서 분실하지 않도록 한다.
-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어린이에게 교재, 티셔츠, 간식을 1주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 성경학교 기간중에 말씀캠핑은 1과와 2과까지만 진행하고 23일, 30일(주일)에 3과, 4과를 이어서 진행한다.
- ZOOM으로 접속한 아이들과의 공과 진행은 사역자(정완영 목사)가 담당한다.

만들기캠핑

- 저학년의 경우 시간 절약을 위해 각 과마다 사용할 만들기 용지를 미리 뜯어놓는다.
- ZOOM으로 접속한 아이들과의 만들기 진행은 사역자(정완영 목사)가 담당한다.

점심식사

- 식사 메뉴는 가지고 이동하기 쉽도록 간단한 메뉴로 한다. (햄버거, 샌드위치, 주먹밥 등)
- 배식한 음식은 한 곳에서 먹지 않고 교회 여러 장소를 이용하여 흩어져 식사하도록 한다. 부모님이 계실 경우 부모님 식사분량도 함께 준비하고 자녀들과 이동하여 분산시킨다.

특별활동

- 첫째날 : 달고나 만들기 세트 준비, 개인적으로 만들기 체험 할 수 있도록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달고나 용 국자를 여러 개 준비한다. 달고나를 만든 후 우유와 함께 달고나 라떼를 만들어 본다. 한 쪽에서는 솜사탕 기계를 이용해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본다. 각각 1~2회 체험하도록 한다.
- 둘째날 : 홈파티용 에어바운스를 대여하여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 마스크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